



「에플 샤르팡트」에서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 신세대에게 모양새 가꾸기는 필수 과목이다. 여대생뿐 아니라 서울 J여고, Y여고에서는 학교차원에서 「멋내기 교실」을 열어 신세대의 자기 표현욕구를 수용하고 있다.

를해지고 못날이 오목하며 옆 얼굴이 영화배우 뺨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볼하고 차민수를 과체형미교실 선생의 과잉여를 대목이다. 방화과 휴가 기간을 이화하면 젊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선생의 과잉여의 뽀얀 피부는 「내비워(내버려두)」. 이렇게 살다 죽을래」식의 인생관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을 개척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희대 張忠鉸교수(정형외과)가 전국의 남녀고교생과 대학생 7천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이렇듯

남자 미장원 출입-목걸이 착용 예사

머리를 길게 자르거나 머리가 부족해 발랄한 모자를 착용하고 귀고리를 끼는 것은 보통 그랜드 여노들에게는 못 여선생의 주위에서는 못 「이중차별」 모자별단위 장도 있다. 대학가의 막. 세상의 지로 가치를 첫. 예쁘고 못된 여자. 자. 못생기고 서다. 예쁘고 못 이 얼마나 못수 있는 여자. 다. 외모로 물결이 가지 당하지 않다는 왜곡된 패션업계. 불친절이 있 비해 유독 수대이기 때문 에 관심이

여름방학 휴가때 살빼기 - 화장술 배우기

성형수술도 옷차듯 가볍게 생각

「반만 끝나면 물라볼만큼 예뻐져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형수술을 하거나 살을 빼거나 메이크업을 배우거나 해서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가 돼 버려요」

여대생 洪靜惠(22, 서원대 3년)의 전하는 신세대 여학생들이다.

신세대들을 결정짓는 주요요건 가운데 하나가 외모와 패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80년대 중반에 고교를 졸업, 취업했거나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에게는 멋대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뚜렷이 나뉘었다고 한다. 멋을 내지 않는 부류는 스스로를 엘리트파로 여기며, 반대파를 「골빈족」(?)쯤으로 무시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신

세대는 고시공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리고 본인이 의식을 하는 안하는 멋대기를 골빈족으로 여긴다. 「외모파」 미기엔 관심없다는 남자대학 이 중, 날을 하는 것은 다 하고 디자인실장의 분석이다. 게다가

세로차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부심이 강하고 개성표현에 민 같은 세대잖아요」

여선생 체 시스템의尹賢慶

키 1백67cm인 眞姬씨(22, 서울강남구역삼동)는 「오늘 시내에 나가보면 나 정도로는 사람들 보충이라 불」 골빈족 두도 당당하게 신고 나간다」고 들려준다.

그런데도 볼하고 차민수를 과체형미교실 선생의 과잉여를 대목이다. 방화과 휴가 기간을 이화하면 젊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선생의 과잉여의 뽀얀 피부는 「내비워(내버려두)」. 이렇게 살다 죽을래」식의 인생관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을 개척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희대 張忠鉸교수(정형외과)가 전국의 남녀고교생과 대학생 7천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이렇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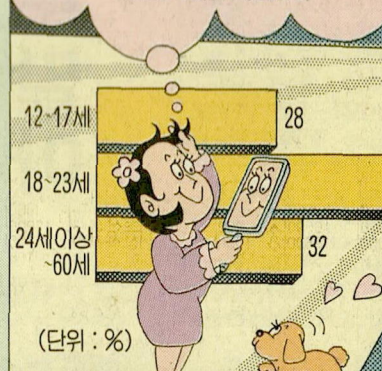
머리모양에도 유행이 있다. 여성들에게는 청순해 보이는 긴 생머리(사실은 퍼머한 머리)가, 남성들에게는 무스발라 앞머리를 세운 머리가 인기라고.

컬러텔레비전과 함께 성장했고 교복자율화로 일찍부터 패션 감각을 익힌 「표현주의」 세대가 그들이다.

사실 젊은 고추현의 기성세대가 볼때 신세대는 가만히 있어도 멋이 있게 생겼다. 공업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평균 키가 가장 큰 시기가 남자 17세로 1백70.5cm, 여자는 18세 때 1백59.6cm로 나타났다. 성인 평균신장보다도 2~3cm가 크다.

「외모 체격 서구화」

“헤어스프레이를 뿌린다” - 개성표현제품 사용조사 -



新世代

멋내기

